

전남대병원발 코로나 확진자 속출... 1.5단계 고려해야

감염내과 등 코호트 격리...외래·응급실 폐쇄 기간 오늘까지 연장
전남도 확진자 속출...동부권서 목포·화순 등 확대 방역당국 '비상'

광주-전남지역에서 코로나19 대학병원과 학교, 유흥업소 등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로 확산하고 있다. 전남대학교 병원 관련 코로나19 확진자는 8명이 추가돼 17명으로 늘었다. 방역당국은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외래, 응급실 폐쇄 기간도 연장했다. 전남에서는 이날 하루 11명의 확진자가 속출했고, 발생지도 순천·광양 등 동부권에서 목포·화순 등지로 확대되면서 방역당국이 비상 국면을 맞고 있다. <관련기사 2·6면>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의 두 자녀가 양성 판정을 받아 광주 567~568번 확진자가 되는 등 모두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중 8명을 포함해 전남대병원 관련 확진자는 17명으로 늘었다. 당국은 567~568번 확진자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해 학생 800여명을 포함해 모두 900명가량을 전수 검사하고 있다. 두 학생이 이날 등교하지 않았지만 예방 조치로 전수 검사에 나섰다고 당국은 전했다.

전남대병원 감염 사례가 이어지면서 국가 지정 치료 병상의 코로나19 확진자 치료, 응급수술 차질 등 의료 공백도 우려된다. 전남대병원의 진료 체계 붕괴는 순차적으로 지역내 다른 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당국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의료진 집단 감염으로 생긴 공백을 최소화하려고 중앙사고수습본부와 논의해 간호사 17명, 간호조무사 4명 등 의료인력 21명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후 신경외과 의사 2명, 간호사 5명, 간호조무사 11명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전남에선 이날 오후 5시 현재까지 11명의 확진자가 새롭게 발생했다. 전남 코로나 19 누적 확진자는 260명이다. 이날 지역별 발생은 순천 6명, 광양 2명, 목포 2명, 화순 1명이다. 감염 고리는 광양제철 협력사 직원, 순천지역 부동산 중개인, 전남대병원 등으로 다수여서 방역 당국이 감염원 추적과 바이러스 확산 차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목포 확진자 2명은 광주 546번(전남대병원 신경외과 의료진)과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며, 화순 확진자의 경우 화순 요양보호사(전남 201번)와 접촉하면서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광양·순천의 경우 광양제철 협력사 최초 감염 이후 다른 협력사 직원, 인근 석유화학 대기업 직원 등을 거치며 산단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취업 준비생, 광양시립극단 관계자, 커피 서비스 업체 직원, 지역 대학생 등으로까지 n차 감염이 이어지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초등학교에 선별진료소 16일 오후 광주 북구의 한 초등학교에 마련된 이동식 선별진료소에서 학생들이 코로나19 전수 검사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울릉공항 26일 착공 흑산공항은 언제?

2011년 동시추진...더 지체 안 돼

울릉공항 건설 사업이 오는 26일 착공에 들어가면서 국립공원위원회 심의에 마쳐 4년째 표류 중인 흑산공항 건설 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공항 예정지를 국립공원구역에서 제외하는 대신 보호 가치가 큰 갯벌을 대체 부지로 제공하겠다는 대안을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가 수용해 국책사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16일 전남도와 신안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오는 26일 착공식을 열고 울릉공항 건설을 본격화한다. 국토부는 울릉공항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마치고 2025년 개항을 목표로 조만간 실착공에 들어간다. 사업비 6651억원을 투입, 1200m급 활주도와 여객터미널 등을 갖춰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 고시에 울릉·흑산지역 소형공항 건설 계획을 반영하고 사업을 추진해왔다. 연륙교 건설이 불가능하고 바닷길 이용이 불가피한 도서지역을 배편과 더불어 항공편을 이용해 육지와 연결하겠다는 취지에서다. >2면으로 계속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코스피 2540선 돌파

2년 9개월여만에 최고치

16일 코스피가 2% 오르며 2540선을 돌파했다. 지난 2018년 2월1일(2568.54) 이후 2년 9개월여만의 최고치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49.16포인트(1.97%) 오른 2543.03에 거래를 마쳤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외국인 4643억원 어치를 순매수하며 상승세를 이뤘다. 이로써 외국인은 8일 연속 순매수 기조를 이어갔다. 개인과 기관은 각각 1610억원, 2760억원을 순매도했다. 코스닥지수는 전장보다 8.19포인트(0.98%) 오른 847.33으로 마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추진 세계 7위 항공사 출범 본격화

산은, 한진칼에 8천억원 지원

정부와 산업은행이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공식화하면서 국내 1위와 2위를 합친 세계 7위권 통합 국적항공사 출범이 본격화됐다. 산업은행은 한진그룹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하고, 한진그룹은 대한항공을 통해 아시아나항공을 인수한 뒤 통합을 추진한다.

산업은행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을 골자로 한 항공운송산업 경쟁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한진칼과 8000억원 규모의 투자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3·14면>

이날 산업은행에 따르면, 산업은행은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자한다. 5000억원은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해당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여한다고 공식했으며,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한진칼에 배정된 몫은 7317억원으로 주식 취득 뒤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2%가 된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13일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해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 5000억원을 인수한다. 주식 취득 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가 돼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한다.

이밖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자회사인 진에어와 에어부산, 에어서울 등 저비용항공사(LCC) 3사에 대한 단계적 통합도 추진된다.

산업은행은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할 통합 국적 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 10 수준의 위상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여객과 화물 운송실적 기준 대한항공은 19위, 아시아나항공 29위로, 두 항공사의 운송량을 합치면 세계 7위권으로 오르게 된다.

두 항공사 통합에 따른 대규모 구조조정 우려에 대해서는 두 항공사의 연간 자연감소 인원과 신규 사업 추진 등을 고려하면 인위적인 구조조정은 없을 것이라고 산업은행은 판단했다.

이번 통합 국적항공사 출범 방안은 지난 9월 HDC현대산업개발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무산된 뒤 정상화 방안을 고심하다 나온 것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형항공사 2곳에 정부 지원을 이어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슈퍼레티놀
단 2주 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을,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2weeks
고함 고함 세 명이 놀기
말이 세 명 통틀어 2주 만에 2년

IOPE LAB